

#### [5.4 기자회견문]

###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서울의 마지막 화력발전소인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이하 당인리발전소)가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투명한 배출량 정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더 나아가 가스발전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아님을 알리고자 한다.

당인리발전소는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준공되었으며, 추후 중유발전을 거쳐 1993년 가스(LNG)로 연료전환 되었으며, 현재 400MW 2기 총 800MW의 설비가 서울 마포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발전소가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가와 철새 도래지인 밤섬 그리고 국가문화유산인 절두산에 둘러싸인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정보가 주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관리규제에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당인리발전소는 222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서울의 주요 쓰레기 소각장 3곳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을 배출했다. 설상가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대기오염물질들은 배출허용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19년 말에 진행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가동초기에 일산화탄소와 총탄화수소 등 규제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을 배출되어 발전소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첨두부하로 사용되는 가스발전소의 경우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가동을 시작했다 고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동개시 및 재가동시 5시간 그리고 가동중지 직후 2시간 동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이후 어떠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이나 대책마련은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인 한국중부발전은 당인리발전소의 배출연기가 무해한 수증기이며 사람의 입김과 같은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발전소를 친환경 주민친화형 발전소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의사항조차 안내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인 마포구는 발전소가 통합관리시설로 마포구 관할이 아닌 환경부 관할이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주민대책위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에 관한 문제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지난 2월에는 마포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발전소 가동 최소화, 알림시스템 구축, 주민지원 등을 포괄하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하였지만, 거의 3개월이 되는 시간동안 발전사와 지자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스발전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마포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경남과 대전 지역에서도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및 설비용량 증설로 인해 발전사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

고 있는 지역 모두 석탄화력발전과 병커C유발전으로부터 오랜 기간 미세먼지 및 건강피해를 본 지역이며 여기에 가스발전소가 건설되거나 증설될 경우 오래전부터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가스 발전소로 인한 추가적인 걱정과 건강피해만 떠넘기는 꼴일 것이다.

발전사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우려와 장기적인 피해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내뿜어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라 칭하는 한국중부발전의 행태를 규탄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중부발전은 재가동시 질소산화물과 그 이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5월 4일**

**기후솔루션, 당인리발전소 공해문제 주민대책위, 경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